

사설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사회대를 제외한 양캠퍼스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22일(목)로 그 막을 내렸다. 내년도 단과대학 학생회를 짊어지고 나갈 11명의 일꾼들이 선출됐다. 매년 이맘때면 이뤄지는 각급 학생회 선거는 무수한 비판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로 학생회 한해 사업을 총화하고 이후 전방을 모색하는 반성과 평가의 장이다.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속에 학생의 건준사업을 고민하고, 낙선의 고배를 마신 자는 패배의 허탈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당선자는 낙선자는 지금 이시기 고민해야 할 화두가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단대별 계열화와 97년도 본교에 실시되는 대총합류평가인정제 등 의대발전과 그 속에서의 학생회 자리매김의 문제이다.

내부부터 시작하면, 사생활은 계층과는 다·단체 생활의 존엄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임생 중 누나와 오빠 우매한지, 우매한지 부모 진정한 자신의 신변까지 모르는 상형이 버려지고 그 속에서 학생들의 입지는 좁아진다(이 1994: 14). 변화된 환경과 체제속에서 새로운 학생들의 적응을 위하여 야 하는 과제와 과업장자의 어려움에 관하여,

『학생』 중년의 글을 보면, 본래 교육과정 정경 또한 바 한가지이다. 『시용자』라고 배우는 교육과정의 위치를 한단계 격상시켜 놓았음에도 계열화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다. 계열화에서 본래 교육과정 개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르자는 이들과의 그리고 배우는 의견들이 조화롭게 한바다 배운 교육 과정이 실현된다든 것은 '때마치 부처님, 삼도도, 화해도, 화해정신을 누누나 소위라고 외쳐내는 지금, 배우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학생회가 내내 외래의 대립 이윤이 계열화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량적으로 전달하고 그들과 학생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화해정신을 주도하는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단편적자의 이후 두세는 화해정신을

5·18은 살아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94년 5·18과 관련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여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올해 7월 김영삼 대통령의 건강은 “기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4개월 후 11월 24일 “5·18을 명예를 제정하라”고 민정당에 지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5·17군사수태로 민족의 자존심을 한없이 손상시켜 우리 모국을 슬금슬금 해대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결심 의지를 표명했다.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쿠데타자 사건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던 김대통령이든 국군의 연변에 부용해 5·18 특별법안을 제정하기까지 여를 거듭 거면서 군화보와 맞서면 정의를 살리기 위한 학생·시민들의 절친한 투쟁이 있었다. 80년 이후 19년 간 진실을 규명하고 학살자를 처단하기 위해 폭압적인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피범벅인 투쟁을 전개해온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언제나 역사적인 쾌거이다.

“5·18특별법 제정”.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우려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청와대 대변인은 “야측이 주장해온 특별검사제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사실자를 말하라고 권해서든 특별법 제정만은 원천하지 않겠다. 민간자들이 처벌대기 전과정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 없이는 절박한지나 규명이 되기 힘산지 때문이다.”

전정호도 김대중총리가 '정의를 살리고 법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기회'를 살피려는 의지가 있고 노태우 비서관은도 일련적 정국과 대선전국을 놓고 수세공세를 물리고 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하트 카드로서의 특별법 제정이 아닌 온 국민의 뜻을 한결한 뭉개웠다는 결단으로 시정회의를 배반. 김대중이 일관한 주 기대했던 국민들의 열의를 애써 외면해 왔던 그와 또한 국민들에게 정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제정으로 그치지 않는 이후 법 제정, 집결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에어설 것이 없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열린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외대라는 공동체 실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백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천리안 OEDAE, 하이텔 OEDAE,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원고에 소속 과·학년·이름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열린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합니다.

모든 학생을 대변하는 총학되길

근년에 있었던 총학과 생활문화위원회간의 대화
 보 논쟁과 11월 13일(월) 학사 회의에서의 휴슨의
 에 기재됐던 총학학 학 건부의 기사에 크나큰 실망
 을 금치 못할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학회에서는
 지는 분명히,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의무를 가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총학학생회, 총학생회 683호 창간의
 모든 학생을 책임지고 대변하는 학생자치기구이다.

교리에 대해 불구하고 대외적 경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투자의 무리는 이 시기의 대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단위에 속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후에 홍학중은 이단 사상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공산주의 사상을 하지 않자 제 전체학생회의 의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의견을 잘 받던 하치오리 그레타는 말로 알려졌고, 하치오리 홍학중이 들었다면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 수석 학생의 목소리인 지 전체 학생회의 목소리인지 모를 것이다. 또 소위 물음들 등뒤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를 것이다.

학부제 문제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학교측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무관한 대입일이 이처럼 차가워 가는 학생들의 의견이 구사하고 지껄임은 세 생강만 해도 분분히 터진다. 권위와 책임을 내세우는 우리의 총학은 학부제 실시 발표 이후 단순히 이에 대한 입장 표명만 했을 뿐 이렇다 할 대응은 하나도 할 생각이 사심이다.

총학생회는 단지 6천3백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
다른 단위 학생회는 어느정도 무시되어도 좋다는
식의 논리보다는 좀 더 올바른 의견수렴방법과 다
른 지지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왕산전반에 신재된
심도있게 살기위한
'나'와 '너'의 스
를 필요로 한다. 어

☐특별기고-사화 부전공 개설의 의의

지역학 활성화 위한 '토대 학문' 될 터

외국학중앙연구원 건립을 추진하고
어문학의 르네상스와 지역학의 메카를
추구하고 있는 본국의 현상에서 사회
부전공 개설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왜냐 다름생 일이다.

필자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어문학의 르네상스와 지역학의 메카추
 구가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지역학이란 지역과 언어와 문화의 이해를 토대로 언어와 지역의 개념성, 즉 특수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언어의 습득과 문화의 이해를 통해 그 지역 고유성을 체득할 수 있고, 정서가 그 지역을 위한 한자문을 구비하는 것이니 한자만 바뀔 때 중요한 의미는 어순

인류적 등의 환경을 의미한다. 지역 · 구 · 각국에서 지역학을 위한 논문으로 지리학, 민족학, 언어가 강조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습득과 리고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문법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학위과정은 안고 있어 현상

한 요체 해서 이루어졌는지 즉 중층적인 역사적
인식론 원인·결과를 파악하는 통시적인 것이
심사할 여야 한다.

지역학도는 통시적인 문화전반의 배경을 파악하고 더불어 지역인이 습득하고 있는 수평함으로써 그 지역인의 의식구조, 즉 행위양식을 추출해내고 그 다음으로 이를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및 다른 사회활동 행위에 적용시켜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다른 분야의 사회생활을 이해한다. 이때 얻어지는 더 연구 초점을 맞추는 데에 따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여러 제 다른 사회과학적인 중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학과에 하는 포스트에 대두된다.

언어습득과 문화의 바탕에 인문·사회과학이 접목되는 지역학에 사학 부전

공은 통치적인 접근에서 사회의 여러면
에 바탕이 되기위해서는 미국의 여러면
아에서에도 생활, 문화가 더 도입되어야
한다. 생활화에서 영국의 개량주의와
말해 생활에서 중심의 이해보다는 의·
식·주·관·혼·상·제 등의 일상생활
문화의 장기 지속적인 변천에 주목하는
학문활동이다. 또한 그동안 소홀히 되
던 현대사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역사, 민족학, 문화연구
등이 분야간의 더욱 보강되고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 학제와 문화의 이해
생동감있고 지적적으로 이해는 더 폭
넓힌 다양한 접근을 주, 명실부합한 지
역학을 일구어 낼 수 있을지 기대한다.
지역학의 한 커다란 분야는 인식뿐만
아니라 나의 지역을 통해 타지역을

정부를 포괄한다. 이는 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치 상황제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낮은 인식을 심화시키는 인식적 인식 대상 인식을 내화하는 인식론적 당위성에서 저조한 외부 타당성에 속하는 저조도 지적의 한부류라 보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외국어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한국사의 인식이 요청되는 것으로서, 물론 한국사의 인식은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임은 인정 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 부진군 학생들에게도 가능한 많은 우리 문화유산 답사 기회를 제공한다면, 해외 문화유산답사도 원천적으로 추진되게 하겠다. 해외비만 본교출발이 습득하고 교양인으로서의 태도와 해당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우리 문화를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자질이 또한 우리 다른 지역학의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노명환
〈사학과 교수〉

한걸음을 내딛더라도
세계로 큰 걸음을 걷는 삼양그룹!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를 외칠 때 삼양그룹은 밖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조용히 세계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사원들이 세계화 되어야 삼양그룹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경영자를 키우는 Future Leader 교육,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Global Manager 교육, 1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공부함으로써 현지적응을 추구하는 **해외파견제도**-**삼양은 젊은 인재들의 패기와 정열을 바탕으로 합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국을 무대로 뛰는 마당발이 되자** 향도.

Future Leader, Global Manager 교육 및 해외파견제도는
세계화를 준비하는 삼양그룹의 사원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영역: 화섬, 식품, 사료, 화성, 금융, 무역, 기계, 환경, 정보통신, 텍스타일, 의료

• 해외활동: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베트남, 이라크 등 해외 각지의
지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지점망 확대에 주력


쌍양그룹

삼영사, 삼영중기, 삼영제넥스, 삼남석유화학, 삼영희성, 신현제분
삼영종합금융, 삼영메디케어, SY텍스티일, 삼영텍스, 삼영데이터시스템

□ 서울캠퍼스 제30대 총학생회 선거 경전토론회 내용 정리

외대발전으로 모아진 세가지 정견

대학발전·학생회혁신 방안 등 활발한 논의

지난 27일(월) 열린 서울캠퍼스 경전토론회에서 △대학발전 △학생회 혁신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 등이 중심내용으로 예고됐다. 약 1백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후보자 공약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대학발전

○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 발전에 대한 내용이 절반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내년도 등록금부족 계획 △96년부터 시행되는 학부·계열화에 대한 입장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입장 △서울캠퍼스 지역대학원 설립 △수업대표제 등이 논의됐다.

내년도 등록금이 약 15%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해마다 제기되는 등록금 인상분도, 어떻게 일할 것인가?

=(1. 정) : 인상폭에 연연하지 않겠다. 기존의 등록금 인상폭을 인정하는 대신 몇몇의 복지사업과 민비부는 시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타대학적인 부분을 하지않고,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개편과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을 할 계획이다.

=(2. 정) : 학생참여보장과 등록금 인상 근거확보라는 두가지 원칙을 지키겠다. 학생회 선거를 진행할 때는 때에 따라등록금 내년도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년도 등록금 94·95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학생회개편에서부터 대학당국에게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요구하겠다.

=(3. 정) : 학교 예산장공제는 요구해 봐야 별 실익이 없다.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등록금만큼 대학교육의 질이 담

보되는가를 제기하였다. 총학생회 산하 상설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등록금 전담하도록 하였다.

96년부터 학부·계열화가 실시된다. 학부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응계획은

=(1. 부) : 도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10여일만에 종속결정했고, 대안인 학과권을 일괄적으로 허용한 일이다. '학부제 대학'을 우리 대학의 국과와 협의기구를 만들었다. 종속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이 필요하다. 1년정도 유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부) : 학생회 스스로 준비를 못한 한 전 사실이다. 학생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직 시행체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75%를 차지하는 학생회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전혀 없다. 대중령을 앞두고 종속시행하는 것이 옳다.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교수들 확충하고 단과대학에 자체활동을 활성화해 대응해야 한다.

=(3. 부) : 학부제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대학평가 때문이라면 평가면제가 가능하다. 유보 연구와 준비를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 유보가 안 될 경우 각 단과별로 나뉘도록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교육과정개편안에 따라 내년도부터 학사제도도 개편된다. 기호 1번은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한 투쟁방안을

=(1. 부) : 전반면제의 이유는 △수업 인원의 40%를 C이하로 결정한다 △수업구성이 현재 5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어나는 △개강이후 수강신청 변

경이 불가하다 이 세가지인데 학생들의 학습권·자유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과 강사를 정할 권 '재외학 운동'을 확장·발전시켜 교양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쟁하였다.

○외국학술연구센터가 용인캠퍼스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의 대안으로 기호 2번은 서울캠퍼스 지역대학원 설립을 주장하는데 근거와 실현가능성을

=(2. 정) : 용인캠퍼스에 건립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서울캠퍼스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14개의 지역연구소와 일반대학원의 7개 지역학과를 통틀어 특수대학원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대학당국과 협의하였다.

기호 3번, 수업대표제의 구체적인 계획은

=(3. 정) : 학기초에 수업대표를 선출해 학생들의 의견을 교수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업대표와 가르치는 교수가 함께 논의해 수업을 보다 잘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공통점인 등록금과 학부제, 자신들의 공약과 특징적인 대학발전 공약을 담았다. 원칙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구비'이거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학생회혁신

○ 총학생회 소관주장이 나오는 등 학생회 혁신과 여론수렴강화방안 등이 제기됐다. '총대의원의 부활'에서 '학생회 구조변화'까지 후보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학생회 혁신을 주장

했다. 기호1번정견으로 논의됐다.

기호 1번은 총학생회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총대의원을 부활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은

=(1. 정) : 전학대의 폐지는 아니다. 전학대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가 되어야 한다. 내년은 과도기로 학·학련실 집행권력을 가지는 자치위원을 선출하자. 학회·소모임·문제대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대안적 학생회 건설을 일괄적으로 기존 총학생회와 구조를 영역별 위원회형식으로 전환시킨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공인체제인 과·단과 학생회 체계와 다른 구조적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정) : 총학생회를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실이다. 과·단과대는 공인 위원회 체계가 아니어도 된다. 지금의 집행부 체계가 아니라 각 단과 자체적인 소모임을 묶어줄 수 있는 체계이다. 자기 단위 실행에 맞도록 '자치권'을 세워야 한다.

기호 2번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중요시하여 여론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여론수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총학생회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대중적 집행방안인데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담당자가 확보되는지

=(2. 부) : 기존의 총학생회는 집행과 정서 실행력이 있었다. 한 예로 컴퓨터공과 의대동호회 내에 의대동무회와 같이 있는데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됐다. 건립할 사람을 세우겠다. 대표적으로 전용 전파선 3대를 설치해 교



봉변

지난 17일(금)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앞 상징탑 조각상의 머리부분이 부서져 나갔다. 예전에도 파손돼 철거시킨 일이 있었다. 총학생회 지성의 상징이 철거됨을 느끼게 한다.

내 사설BBS를 운영하겠다.

주요공약

○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도 도마위에 놓여졌다. 도서관 신규도서 신청, 학생회 재건축 등이 제기됐다.

○공약중 학생회관 재건축 공약은 일부에서 '힘겨운 공약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다. 재원확보방안과 건축할 동안 학생자치활동은 어느 곳에서 진행할지 대안은

=(3. 부) : 학생회관 재건축은 스뮌의 회화를 재건축 후 안전도문제 해결에 인에게 '광장'을 만들겠다 이 두가지가 목적이다. 재원은 학교예산중 건설가계정이 약 70% 정도인데 그 중 반 정도만 건축이 가능하다. 6개월이면 가능하고, 건축기간 동안 가사용건물을 새로 이용하면 된다. 아니면 건물 실행도 80% 정도인데 강의실 사용도 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완공이 후 대학당국의 행정권 아니면 학생들의 자율권 불충 어느 것에 따라 학생회관을 재건축하는 문제이다.

결과 및 응답

□ 용인캠퍼스 제17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이재규 군을 만나

"왕산을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회 회계계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학생회 사업방향이 학내 복지사업에 한 매를졌다.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았다.

17대 총학생회 건준사업 계획은

현제 세미전 준비위, 학자, 정책 1·2주 등 주요간부는 인선이 된 상태다. 건준위는 오는 12월 30일(토)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고 원하는 학생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도 핵심사업은

첫사업은 학부제 과도기 운영방안을 대학당국에 권할사라는 것이고 핵심사업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실

○ 후보자들 상호간의 질문과 방정하는 학생들의 질문도 허용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핵심으로 떠올라서인지 선거비용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총대의원의 부활 공약 △원칙적인 운동권 비판 △올바른 학생회 선거풍토 마련 등의 내용이 제기됐다.

=(2. 정) : 기호 1번은 총대의원의 부활을 제시하는데, 전학대의에서 학생회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역기능이 많아 오히려 패자변 총대의원의를 굳이 부활할 필요가 있는가

=(1. 정) : 총대의원은 '국회'의 기능을 담보해야 한다. 전학대의는 집행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두 기구의 기능을 융화되게 해 과도기적인 체제를 일구어 한다. 타학교 총대의원의에 대한 시사점도 반영하겠다.

=(1. 부) : 총대카드를 보면 일괄적인 상대방 비판이 있다. '운동권반의 학생회를 거부한다'는 게 그것인데, 소위 '비운동권' 학생들의 표를 얻기위한 선거전술은 아닌가

=(3. 정) : 나는 운동권이다. 80년대 모든 운동이 변혁 즉 혁명에 맞춰져

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학생회는 더이상 대중운동과 혁명의 도구 아니다. 학생회는 자체 목적이 있다. 거기에 복무해야 한다.

(방청인) : 선거자금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돈 안쓰는 선거풍토 창초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돈 선거비용과 조달방식을 밝히라

=(1. 정) : 선거자금은 후보와 운동원들이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어 차별적으로 낸다. 4·5백만원선이다.

=(2. 정) : 후보자·운동원·사회 진출한 선배들에게 모금통에서 조달한다. 빛도 있다. 사무국에서 일할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략 5·6백만원 선이다.

=(3. 정) : 비슷비슷하다. 4·5백만원 선이다.

진행 중간중간 후보자들 인사와 공약, 주위사람들의 후보자 평가 등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진출한 주위의 평가가 좌중을 웃음을 자아냈다. 경전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외대교육방송국은 교내 곳곳 스피커로 경전토론회를 생중계했다.

취재박수

올리지 않는 신문고

인양만 총장 취임 이후부터 시행돼 왔던 열린총장실은 그동안 많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정책과 복지문제 해결에 앞장섰었다. 지난 22일(수) 서울캠퍼스 포르투갈로 학생들이 참정하기로 했던 열린총장실이 학생들의 불만으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포르투갈로와 학생회는 "합의도를 높이기 위해 각자별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운영상의 문제제기로 지적했다. 열린 총장실의 본래 의의가 퇴색하지 않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학당국의 열린총장실에서의 적극적 문제해결의 모습이 더욱 요청된다.

오은진 기자

결혼이유로 해고된 김은주씨 복직 노사화합 초석 마련

용인캠퍼스 노조위원장인 김은주씨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김은주(가명) 해직된지 다섯달만인 지난 13일(월) 대학당국의 해임발령 취소로 원직복직했다.

대학당국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김은주의 복직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조건없이 복직시켰다"라며 "이번 일이 노사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해임발령취소 이유를 밝혔다.

사무보조원인 김은주의 결혼복직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30여명에 걸쳐 결혼과 동시에 '복직한다'라는 결혼복직

규정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취지는 동안 나고 용역종종추진에 위임되는 것으로 관례화된 김은주의 해고 부당판결이 재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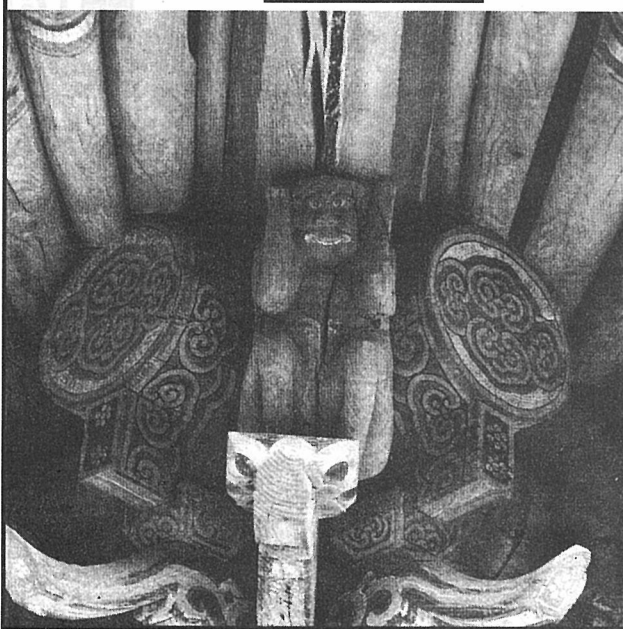
김은주는 지난 7월 지노위에 결혼복직과 관련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했고 지노위는 김은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김은주의 복직을 거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1월 둘째주에 발표한 재심결구 또한 지노위의 판결과 동일하게 김은주 승소결정을 내렸다.

다섯달동안 복직을 위해 힘든 노력을 해온 김은주는 "힘든 과정이었으나 복직이 의외로 쉽게 됐다"라며 현재의 심정을 말했고 "산책에 있는 직원들의 불평등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된 김은주의 문제는 사무보조원 결혼복직규정이 부당성 판정이나 "만 30세를 정년으로 한다"라는 정년퇴직규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아 사무보조원의 직제개편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서울캠퍼스 제30대 총학생회 선거



외대발전의 기둥이 될 튼튼한 재목

—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



기호1 : 좌파 주류질서의 전복자

정 : 김윤식(서양·영어 4) 부 : 김현호(동양·베트남어 3)



기호2 : 96희망의 실천·생동하는 총학생회

정 : 박성동(상경·경영 4) 부 : 나인우(동양·이러어 3)



기호3 : 새로운 대학질서의 창조

정 : 박호진(사범·독고 4) 부 : 엄형식(서양·불어 4)

● 투표일 : 28일(화), 29일(수)
● 장 소 : 도서관 앞 투표대

민족자유언론
외대학보

◆ 달라진 정치지형, 어디로 갈 것인가(2)

회생성 없는 각당의 총선카드

5·18 정치적 이용·3김 극복할 신세력 요구

글심는 순서

1. 달라진 시대정세
2. 한국 정치질서 개편의 전망
3. 정치조직의 대안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전제

새로운 정치! 누구나 절실히 바라는 바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가 않다. 왜?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나쁜 세력에게 현실적 이익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느냐는 문제이다. 이것은 명분의 정당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과거 한겨레당이 민중당이 내건 기치는 기존 민중의 입장에서 정당화되었었다. 그러나 이런 정당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현재 개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3김타파와 지역활각주의의 청산은 누가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지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떤 정당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실제 정치적 행동과 불일치 할지라도.

현실정치의 벽은 두껍고 견고하다. 거기에는 한국사회의 전체의 모순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 이것을 넘어서는 힘! 내용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미래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는 가능한가? 라는 주제에 접근해 보자.

비자금 정국과 기존 정당의 상황

먼저 현실정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치는 낡은 정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낡은 정치가 깨질 때 새로운 정치는 시작된다. 이른바 비자금 정국, 이것은 낡은 정치가 자기완성을 드러내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현재의 정국은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혼돈에 빠져있다. 그만큼 도태유치 비자금 사건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비자금 정국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력도, 전망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기존정당은 이미 상황적응 능력을 상실했다. 이번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가 자랄 수 있는 틈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민주당을 살펴보자. 민주당은 비자금 정국에서 국민회의와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것은 민정당, 공화당, 민주당의 3당 합당이라는 대선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지자재 이후 시작된 정계개편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다. 각 당은 내년 4월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 각종 선심성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상 현재를 지닐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세력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모래시계 세대의 불리는 2~30대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있다. 사진은 2~30대로 이뤄진 청년 프론티어 모임이다. 사진·말

재의 문민정부는 누가 봐도 5·6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새정치 국민회의에 대한 압박과 노세 사법처리로 맞대응해 오다가 지난 2월(금) 정국교섭을 위한 카드를 내놓았다. 당명변경과 5·18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권 자정작용, 민주당 당직개편 등 계속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정국수도권을 장악하면서 내년 총선에 일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글말태식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의 눈을 돌려보자. 김대중총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김대중총재는 3김제 중 유일하게 노세로부터 20여원을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5·18특별법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국민회의는 그간 중산층 정당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온건하고 중도적인 보수당으로 형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정강·정책의 내용이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회의의 역시 민주당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회의에 김총재를 비롯하여 많은 민주당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책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비자금을 둘러싼 광범위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김총재가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서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유신본능'을 자랑하는 자민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3김제가 주도하는 정당 이외에 남은 정당은 민주당과 개혁신당이다. 민주당은 박재홍 의원 덕분에 상승무드를 타고 있다. 개혁신당과의 통합 작업이 원활하게 판단되면 내년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창당직업이 끝나는데도 민주당과 적극적인 통합에 나설 것이다. 3김세력의 이전투구로

세대교체와 새정치를 내세운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렇게 각 정당은 비자금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며 서로의 약점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 이렇듯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존정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새시대 요구와 기존 정당의 한계

민주당과 개혁신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3당은 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전혀 안맞는 정당이다. 시대는 21세기를 치닫고 있다. 새시대는 현대화,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의 국제화, 공존공영, 민족통일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3김정당이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둘째 전국민적 공동과 복지, 인권화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들은 모두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말은 주로 기존 자민련이나 혹은 기득권자나 이익세력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농민·도시서민들은 계속해서 못살라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 단 한 사람의 노동자·농민·도시서민 출신의 의원은 없다. 셋째 3김정당은 진정한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다. 통일은 주위·주변이나 이념노선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의 이익을 우선할 때 가능한 것이다.

3김정당은 안락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얼마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당인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다만 이들 역시 정강·정책이나 구성에 있어서 기존정당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생긴다. 물론 한국적 토양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정당이 나오기는 어

려를 것이다.

이미 형성된 새 정치의 가능성

그러나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적으로 훈련된 엄청난 정치자원이 있다. 이른바 모래시계 세대로 불리는 세력이 그것이다. 이들은 현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의 절대다수에서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20~30대가 전체 유권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주의와 낡은 정치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또한 우리 국민의 70%정도가 새정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민주당, 국민주의에 장지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정치가 썩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3김정치 이후의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기존정치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야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정치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 있다. 개혁신당의 출범은 낡은 정치가 새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신당은 부정치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새 정치는 전혀 새정치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문제는 곧 국민의 문제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나갈 때 새로운 것이 가능해진다. 단언컨대 그 시기는 2~3년 내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는 이것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김 경 환

(말'지 정치부 기자)

외국진보정당의 사례② - 스웨덴 사민당

40년 통치로 이룬 스웨덴 개혁

인간평등에서 출발한 사민당

현재 스웨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1889년에 창당한 사회민주주의노동당(사민당)이다. 얼마전 실시된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사민당은 최근 수십년간 약 45% 이상의 유권자들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고 현재 가장 안정된 정당으로 위치하고 있다. 창당 초부터 민주적 사회주의(Demokratisk socialism) 노선을 채택했던 사민당은 주로 산업노동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사민당의 중추세력은 각급 노동조합 단체들로 구성되며, 노동운동단체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40년 장기집권이 보여주는 국민지지

이렇듯 사민당은 노동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기본정책 역시 "고용안정과 모든 국민의 취업권리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가치관에서 출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원과 공동으로 생산해내는 물품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부의 편차가 없는 평등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서 인간 상호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연대성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민당이 처음 정치 전반에 등장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이다. 세계대전 후기 스웨덴은 2백 80척의 선박이 침몰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16년 이후 식량의 통제와 배급제 실시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다음해 가을 총선 결과 하원의 우파세력이 격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은 전후사태의 대책과 지원의 회복을 위해 사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1917년 연립내각은 여당인 자유당과 사민당의 협력을 통해 연립내각에서 성공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다.

1920년 데리이 사민당은 최초의 독립내각을 구성했으며 다음해 사민당은 2당이 되어 보다 튼튼한 기반으로 2차 내각을 조직하게 된다. 헌법개정과 결과로 사민당의 세력이 급격히 확장된 것이다. 1932년 실시된 총선거에서 국민 절대다수의 새로운 연립 내각을 구성했으며 침체된 국내의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계획하고 장기소득을 보조했으며 아동을 기증의 생활 향상은 목표로 한 정치적인 가족 정책을 채택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 사민당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정당과 연합을 통해 4회에 걸쳐 내각을 구성했으며 1932년부터 1946년까지 한순의 내각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정국을 잘 이끌어갔다. 또한 종전 후인 1946년 구성된 에르란데르 내각은 농민당과의 연립내각으로서 전후 부흥산업에 착수, 재일 기간 동안 경제 회복을 이룩했다.

개혁정치통한 '발전모델' 이룩

그러나 1970년 총선거에서 최대 경쟁이었던 해에서 문제로 집권당인 사민당은 40여년만에 실권했고 비사회계 연립정부가 82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이후 91년에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변화된 민심은 보수당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2년의 총선을 제외한 정치질서를 통해 사민당은 경제부흥과 함께 지속적인 개혁정치를 통해 '스웨덴식 발전 모델'을 이루게 된다.

사민당이 이룩한 발전모델의 특징은 첫째 점교한 세금제정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 둘째 고용주와 피고용인, 자본과 노동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셋째 통합된 국민연금을 기초한 정책결정 방식, 넷째 중립정책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적극 간여하는 대외정책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불금자유금제도 구상이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자 구별 통해 점차 큰 기업체의 소유권을 인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임금기업의 자연도태를 유도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사민당은 명실상부한 집권당으로서, 스웨덴 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룩했던 주인공이었다.

박현숙 기자

正道경영·초우량 LG

2002
World Cup Korea

“
폐인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



David Pein
광학의 과학자, 광학 Optical
Fiber Group의 CEO/대표
주요 공헌: 광학의 과학자
광소자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지속적으로 1000여명의 전문가를
발견하고 11개의 특허를 취득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발견하고 있다.

광케이블, 광섬유—
선생님의 명성 드높히 하지만
죄송해서 어떡하죠?
선생님의 그 명성을 앞서게 되면...

수신 Giga Bit/sec의 초고속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송하는 광케이블—
대장경 광섬유의 직경은 245µm,
실리카 글라스의 순도는 99.9999%—
사람 머리카락 보다 가는 이 기가바이트 유리관용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업적과 명성 드높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선형의 그림자입니다.
차원 높은 21세기 "INFORMATION SUPER HIGHWAY"
차원 초월.

이 분야 세계 TOP에 도전하는 세계 10위 기업.
LG전선! 멀티미디어 시대를 가능케 하는
차원 높은 광통신 기술로 미래사회의
핵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LG전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LG트윈타워)
TEL: (02)3773-2344, 2334
FAX: (02)3773-2640

■기초사업/비철금속/공기기술 분야, 철연재료/가공기술 분야
■주력사업/초고압 기술분야, 광통신, 광 응용시스템 분야

ENERGY & INFORMATION SUPER HIGHWAY를 개척하는 LG전선

■ 용인캠퍼스 모현 학사를 뵈었다

② 기숙사생의 편의 외면한 식당

월말이 되면 학생들 사이에 식권 경쟁이 벌어진다. 한달 동안 사용해야 하는 45점의 의무 식권 중 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치회를 하는 학생들이나 45점의 식권을 다 사용해 버린 기숙사 학생들에게 9백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할인식권은 자치회는 학생들에게 팔린다. 1천3백50원으로 계산한 4개월 동안의 식권비를 한꺼번에 지불해 버린 학생들은 차마 버릴 수는 없고 그나마 필요없는 학생들에게 손해를 보면서 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계산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매를 한다는 것도 윤이 좋아한다. 그렇지 못한 많은 학생들은 돈을 주고 식권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달에 45점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기숙사 식당에서 하룻밤 한끼 정도 식사밖에 못하는 것이다. 이유는 식권의 값이 인플레이션에 아예 못 붙어 있다는 것이다. 1천3백50원의 식권으로 1천원 정도의 식사에 비해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도 곧 폐지될 것이다.

내 돈내다 권리를 찾기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쌓이자 9년째는 남은 식권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곧 식당주인이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그리고 한때 학생들의 요구로 같은 업자가 운영하는 이문관 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1천3백50원의 식권으로 1천원 정도의 식사에 비해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도 곧 폐지될 것이다.

□ 모현학사 운영과 장래를 논하다

돈 관리는 경리와 일, 우린 전적으로 운영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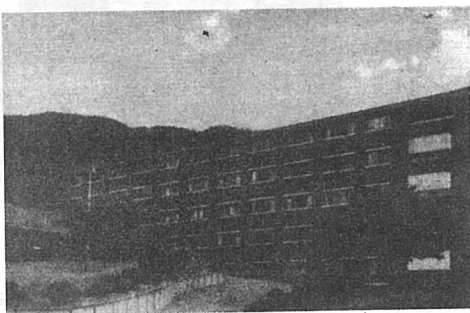
- 식단의 음식 질 향상을 위해 기숙사 운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학사장과 운영과장, 사생활과장이 모여 식단과 식관리를 조율하고, 급주의 식단을 검토하고 있다.

- 학생들 사이에 식권이 많은 것은 불편이 있다

= 하루에 밥을 한끼는 적어도 먹는다.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기숙사 학생들이 금요일에 집에 내려가거나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제 때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영과장 입장에서는 45점 정도에 수지가 맞다고 보고 있다.

- 식권비를 운영자에게 후불로 한달에 두 번 지급하는 이유와 한 학기 105점 정도의 식권에 대한 이유의 차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기숙사생들이 운영자로 송금한 모든 돈의 관리는 경리과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한달에 두 번 받아오고 결



모현학사의 식당에 대해 기숙사생들은 음식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식당공제 입학, 식권비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올바른 이용법을 주장하고 있다. 매달 의무적으로 사게 되어있는 식권구매에 대해서도 자율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금에 1인당 한달 남는 식권이 5~10개까지는 반납이 가능한 정도이다.

9년 학생들의 집요한 요구로 '자율 식권제'가 생겨났다. 이는 식단 운영자와 학생들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니 고정으로 들어오던 식권비가 자율구매로 바뀌자 학생들의 식권이 자주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측도 다시 요구해 이번 학기 다시 강제가 시작됐다.

"학생들이 밥사먹을 돈으로 술을 먹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밥을 먹지 않아 건물이 약해져 부모님들이 걱정한다. '누가 자율구매에서 강제로 바뀌게 된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이대로 가다가는 식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1개월간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각 계각층의 움직임은 활발했고 다양한...

대우 기숙사생들이 일어난다. 때 쉼 없이 전화를 걸었다. PC 통신에는 노태우 비자금과 5-18 특별법 제정, 특...

그리고 통학거리의 난이도와 따라 선별하는 것이 주요인 지방 학생은 아니다.

기숙사생의 5%에 한해서 학사장의 동의를 거쳐서라도 하고 있다. 이 5%는 교직원 자녀나 특수한 경우, 가정 형편이나 신체불구 등이 해당된다.

- 기숙사 생활 이후 1번 바뀌었다. 그 후로 예전의 학사장이 연임하고 있다.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별첨을 비롯해 기숙사 불발사 추가입사자 식권금 등을 결정한다. 또한 식당-매점 계약에 비롯해 각종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김태형 기자

식권 판매가 부른 식권 경쟁

오른 가격만큼 식사 질 향상 돼야

"사실 학생들 중 서울에서 살거나 근처 지방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금요일이면 집에 내려가니 밥을 먹을 리 없고, 그러나 식권사 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집에 내려가지 않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식권이 부족해 나중에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운영자의 말이다.

모현학사 식당의 식권가격은 90년 7백50원에서 현재 1천3백50원으로 2배 이상이 인상됐다. 운영자 측에서는 학생회관 식당을 비교하면서 식권비 인상의 합리성을 찾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비교 식권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는 학생들은 적다. 한 예로 91년 이전에는 한달에 두 번 나왔는데, 92년에는 가끔, 93년에는 아예 없었었다. 94년 들어 한 학기에 한두번 나올까 말까하는 식권에 달 또한 예전과 다르게 1/4로 줄어든다.

학생들은 식권의 공개입찰과 식권비가 전적으로 식사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받은 식권비를 운영자에게는 다같이 환불로 주고

운영자에게 이를 한 학기 한 번에 지급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로 운영자는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자의 문란도 조율하는 것이다.

이국성 기자

평수당

□ 터키의 유목민적·이슬람적 문화

강인한 유목민의 후예, 터키 여성



김대성 (터키어교수)

터키어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목국인 흉노와 돌궐국가를 건립했고 그 후 중동지역으로 진출하여 셀주크제국과 오스만제국을 건설했다. 따라서 터키어 문화를 분석해 보면 유목민적 요소와 이슬람적 요소가 중요한 비중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후의 집착의 결과로 나타난 사후적 요소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후적 비중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후적 요소의 문화적 요소는 터키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슬람교에 예속된 터키인의 대다수에서는 사후적 문화요소가 오히려 유목민적, 이슬람적 문화요소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만 터키는 달리 이슬람교와 이란에 입합한 터키어 문명주의라고 보면 이슬람적·유목민적 문화요소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을 대할 때에도 사후적 문화에 호감을 가진 여성과 유목민적 이슬람적 문화에 친화적인 여성에게 각각 상이한 반응을 적용해야 한다. 사후적 문화에 호감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낮은 남성이 친밀감을 베풀고 남성을 절제하는 문화를 보여준다. 유목민·이슬람적 문화요소에 친화적인 여성들에게는 절대 남성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을 지속적으로 처다보면 유목민적 마음을 품고있고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슬람이 요구하는 율법에 따라 유목민에 해당하는 보복을 주면 사람이나 담자로부터 당할 수 있다.

터키어 관습에 맞게는 유목민적 사람은 자기 신체의 일부를 상실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한 것이다.



우리말 속 일본말

(16) 잔업(殘業)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 계속해서 하는 일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이다. 정한 동안의 일을 다하고도 덩어로는 알므로 '잔업'이라고 고쳐 써야 한다.

예) '미안해! 오늘 약속 미뤘어. 잔업이 있어.' '미안해! 오늘 약속 미뤘어. '잔업'이 있어'로 해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다.

우리말연구회

문 화 응 달 심



새 책

문화화교 서울 역음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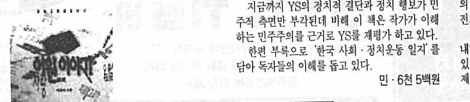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 1백주년 기념에 영화사들이 걸어온 영화 1백년을 소개하고 있다.



백강선 지음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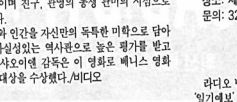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백강선 지음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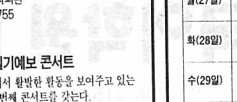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백강선 지음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중국어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특이한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 우리 문화 살리기

- ① 음악 - 신비로 신, 공룡
- ② 영화 - 영희전통법
- ③ 방송 - 방송법
- ④ 출판 - 출판법
- ⑤ 만화 - 심의제도
- ⑥ 총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물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로 인해 단행본 시장의 경우 이중적 심의체계라는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 출판시장의 심의는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물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패방지, 윤리, 저속, 도덕, 성, 정치·경제, 사회, 문화, 관공적 등의 문제로 분류된다. 문화체육부의 '제1차년도'에서 담당한다. 이 부서는 문화심의와 영화·도서의 집지공고도 심의한다. 제1차년도 조직체계는 수석심의위원 1명 하에 심의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이 구조에 의해 심의·심판되는 만화물 수석심의위원의 분류에 따라 담당하여 심의를 시행한다. 그러므로 심의위원 1인이 시리즈 만화물 경우, 시리즈 전체를 담당하여 심의하며, 아동도서와 잡지광고도 병행하여 분담하게 된다.

문화체육부의 전반적으로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분류된다. 사전심의는 대본소를 단행본과 만화잡지의 서점용 단행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후심의는 만화잡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전심의의 체계는 제작된 원고를 담당 출판사가 심의신청한 후, 48시간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통과하게 되어 있다. 또한 심의가 완료되어 통과 및 수정통과된 만화잡지에 한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필 마크를 부착하게 되며, 이러한 사전심의의 결과와 통과는 통과와 수정통과 외에 전반적인 개작, 재가, 번역의 재심심정 과정이 있다.

□ 민족가극 '백두산' 연습가 문화교체를 만나

“민중들의 끈질긴 투쟁, 고고한 민족성 담았다”

84년 귀국 이후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한국음악과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매년 새로운 시도로 공연예술계의 변화를 모색했던 문호근(50)씨 가극 '백두산'으로 그간의 각종 실험과 총체적 2장르의 경험, 민족적정신 인식 등을 한국음악극 창작에 결집을 댔다. 마지막에 오는 '백두산' 연습을 바쁜 문화교체를 만났다.

새로운 형식의 민족극으로 인정 받고 있는 가극에 대해 그는 “해방 전부터 이어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근대연극을 폭넓게 수용하며 우리의 정서를 하나로 묶어줄 문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가극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94년 무대에 올랐던 가극 '금강'은 가창과 연기, 음악과 무대미술 등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했다며 “지난 공연의 아쉬웠던 점들을 교훈 삼아 뛰어난 연기자, 기술인들과의 협력을 비롯해 연기자도 세트 디자인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방이후 지속되는 민족의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통일과 미래를 열어가는 겨레를 통해 민족의 과거·현재·미래를 사실 그대로 노래하고 있다.

'백두산'의 성숙한 가극의 모습을 기대하게 됐다.

“연극을 차츰 완성시켜 가면서 우리 민중들의 끈질긴 항일투쟁과 고고한 민족성이 가슴 울랄한 감동으로 다가가고 절로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민족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백두”라는 한 인물과 그의 여동생 “옥단”의 갈등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

니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더 나아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 간의 갈등을 나타내며 “하지 만 결국 옥단과 비구가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하나니는 감격을 우리에게 안겨 준다”고 작품에 대한 이해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의 무장 독립투쟁을 통해 민족의 근대적 자의식과정신을 다뤘다”며 “전체적으로 민족성에 뿌리를 둔 민족성을 현대적인 재해석으로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으로 그는 “현실정치가 복잡하고 당대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통일이 되면 해결될 일임으로 통일을 위해 더욱 정진하자”며 “백두”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학생들에 대한 충고를 밝혔다.

김태형 기자

심의필 마크 따기 위한 이중판문

연재만화 단행본뿐 또다른 사전심의 거쳐야

며, 이러한 경우는 심의필 마크를 부착할 수 없게 된다. 심의필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만화는 불법만화로 간주되며, 심의 결과에 의해 반포되거나, 원고의 도서상표화는 불합격하게 된다.

사후심의는 만화잡지 발행주(사후심)에 해당되는 만화잡지는 문화체육부에 납본된 도서만을 대상으로 한도에 실시되며, 내용검토 후, 심의결과에 대해 이상 이 발생했을 시에는 주의, 경고, 제재건의를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와 누락이 있을 시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잡지의 등록 및 취소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공보처에서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만화 심의체계는 단행본 시장의 중요 변수로 분석된다. 이는 만화잡지 연재 이후 단행본 되는 만화산품의 경우 중복되는 이중적 심의체계를 안시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심의체계는 만화잡지사와 공동으로 일본복제 만화시장을 공시화시키는 역할을 행하고 있다는 비의도적인 결과로서의 분석을 산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군사독재 시기에 행해진 무자별하고 무분별한 기존의 심의체계가 규정을 회복해 가고 있으며, 불법복제만화의 규제와 단행본 시장의 공시화에도 당카본으로서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만화 심의의 개편은 만화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단행본 시장에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만화심의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70년부터 90년까지

의 심의결과를 보면 정치적 변혁기 마다 만화심의신청 건수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발견하게 된다. 72년과 73년의 양적차이는 유신정권의 삼인만화 단속이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78년부터 80년의 양적 저하는 사회정의 운동에 의해 만화출판 자조현상으로 분석된다. 80년 이후의 양적 증가는 6·29선언 이후의 사회적 갈등상황이 해결되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90년대 이후의 불규칙적인 동계는 일본만화 수입 이후의 국내 만화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만화산업은 이와같이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그 작품의 성향과 규모가 유동적임을 나타내 주는 특이한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심의 현황을 보면, 90년도의 경우 아동·청소년 만화의 총 발행부수 6,839,360권이 심의·신청되었는데 단행본 28종이 나머지 전부 시리즈로 집계되었다. 이중 문제점이 없는 ‘물과’가 5천 707권(3%), 수정할 내용이 적어서 출판사나 작가 스스로 수정 발행을 한 ‘수정통과’가 1천 4백 61권(2%), 부분제외된 수정이 불발된다고 하여 재심의를 받아 수정이 필요한 작품을 확인한 다음 발행토록 하는 ‘재심’이 3백36권(4.9%), 작품 전반에 걸쳐 수정을 요하는 ‘전면제외’가 31권(0.4%), 상인용 또는 일본복제 표지·모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리’ 결정이 52권(0.7%)이었다. ‘통과’와 ‘수정통과’가 전체의 9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

심’ 이상의 결정을 받은 작품은 전체 결정의 6%라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되는 만화의 선정, 잔인성 묘사는 갈수록 그 농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출판물로서의 단행본 만화를 심의하는 현재의 체계는 만화산업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의 상반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심의체계의 구조 자체가 만화산업의 수직계열화 체계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함을 의미하며(현재 애니메이션은 공영방송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인 만화산품의 독창성에 반대급부적 역할을 수행하는 역기능을 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체계는 만화시장의 공시화와 함께 자료를 유익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만화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측면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으므로, 만화산품의 체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미래 지향적인 심의방식은 물론 사정상의 철폐로 귀결될 수 있으나 그러한 과정까지 공시화라는 민간화에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만화매체의 사회적 효용을 관리해 낼 수 있는 심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단계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창 완

(만화가인가, 공주전통대
만화예술과 강사)

여인이 전쟁 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복잡한 문제를 내용으로 한다.

중국어과 제2회 영화제 개최

중국어과는 제2회 영화제를 오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중국을 대륙, 대만, 홍콩으로 구분해 영화를 상영한 이번 영화제는 ‘인생’ ‘비정신사’ ‘애정시대’ 등 영화 9편을 소개했다. 영화제를 준비한 이영자(1)은 “뉴웨이브 감독들의 영화를 통해 중국이 자기 그 나라의 체제에 따라 적응해 온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외대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외대합창단(단장 이영자)은 지난 25일(토)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합창과 혼성중성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짜여졌고 특히 모차르트 존콘트 등 Sequenz 등의 여섯곡을 합창해 많은 학생들로부터 높은 반응을 얻었다.

목요음악반 정기음악회 열려

제2회 목요음악반 정기음악회가 지난 23일(목) 대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문화’ 속

에 나타난 음악이란 주제로 차이코프스키의 환상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영상과 함께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비디오 ‘비포더 레인’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

“비포더 레인”이 머리 속에 남는 이유는 내용이 매우 좋았을 뿐 아니라 그 형식에서도 아주 독특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말이 있다. “원은 돌글지 않다” 이 영화의 형태 역시 1부·3부로 나뉘어 3부의 끝이 다시 1부의 첫부분으로 돌아가는 원의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단순히 끝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첫부분 words는 한 젊은 수도사가 알바니아에 여자를 숨겨주게 되고 젊은 사랑에 빠져 수도사의 상흔이 사는 런던으로 도망을 치러다가 여자의 할아버지족 알바니아 사람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이제 두번째 단막, 수도사의 상흔은 사진 가지이다. 런던에서 한 유부녀의 사랑을 하게 되나 보스니아에서 자기로 인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보스니아로 돌아가게 된다. 거기서 예전의 사랑했던 알바니아에 여자를 찾아가니 여자는 남자를 거부한다. 그런 도중 알바니아 여자의 딸이 기독교교 남자를 죽였다. 이 이유로 기독교교 사람에게 의해 잡히게 되고 알바니아 여자는 수도사의 상흔에게 도망을 것을 요청한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원은 돌글지 않다”는 말이 좀 들어서 다시금 되새겨 본다. 전쟁, 학살, 평화 이러한 개념을 가진 것들이 사대에 걸쳐 변화가 있으면 분명히 있고 다시 평화.

그러나 역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진보가 반복되는 역사는

것을 이 영화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인간생애에 대한 경시, 중요, 전쟁,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너무 비극적, 5·18, 노태우, 투쟁, 학살, 평화 이러한 개념은 역사의 고리이며 순환이라고 생각된다.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다. 그러나 3부가 1부로 반복되는 단순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이른다.

최 현 석

(정책·행정 1, 민족학이반)

문 화 단 신

서울

독일어과 영화 소모임 ‘필리베’, 영화제

독일어과 영화 소모임 ‘필리베’가 오는 27일(일), 28일(화) 대강당에서 ‘영화제 1박 2일’ 기념 대외인이 뽑은 베스트 6 영화제를 개최한다. 본교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네 멋대로 해라’ ‘헝가리’ 등 6편의 영화를 선정해 상영한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관객들에게 변화가 적었던 자료집을 나눠주고 추첨을 통해 ‘필리베’가 직접 제작한 ‘오리진’ 사운드트랙을 줄 것이다. 또 기존의 영화제와는 달리 팔팔랫에 ‘실문조사 결과’ ‘감독·평론가들이 뽑은 10편’ 영화상식 등의 내용을 첨가해 관객들에게 다이나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포르투갈어과 원어연극

전국대학의 ‘조앤스(JOVENS)’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제10회 포르투갈어 원어연극이 지난 25일(토) 대강당 104호에서 열렸다.

“신비한 여인(MEDUSA)”란 제목으로 한

중국어과 제2회 영화제 개최

중국을 대륙, 대만, 홍콩으로 구분해 영화를 상영한 이번 영화제는 ‘인생’ ‘비정신사’ ‘애정시대’ 등 영화 9편을 소개했다. 영화제를 준비한 이영자(1)은 “뉴웨이브 감독들의 영화를 통해 중국이 자기 그 나라의 체제에 따라 적응해 온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외대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외대합창단(단장 이영자)은 지난 25일(토)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합창과 혼성중성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짜여졌고 특히 모차르트 존콘트 등 Sequenz 등의 여섯곡을 합창해 많은 학생들로부터 높은 반응을 얻었다.

목요음악반 정기음악회 열려

제2회 목요음악반 정기음악회가 지난 23일(목) 대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문화’ 속

에 나타난 음악이란 주제로 차이코프스키의 환상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영상과 함께

연결, ‘제자리 뛰기’ 공연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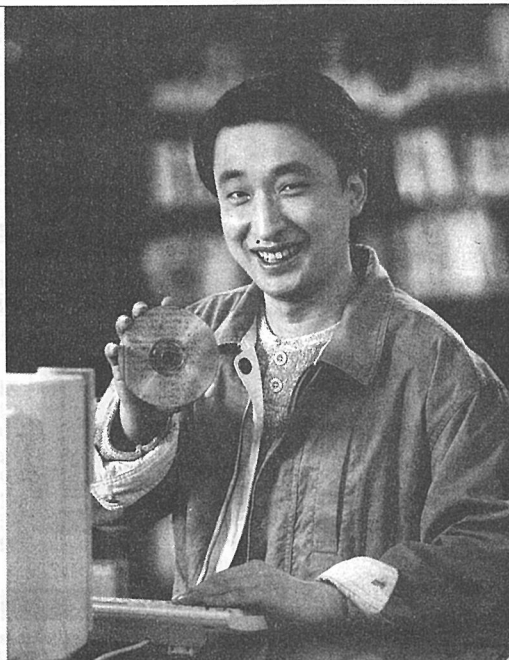
지난 23일(목) 연극 동아리 ‘연결’의 제2회 워크숍 공연이 교양과 503호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 ‘제자리 뛰기’는 세 인간이 사교를 당하면서 이승과 저승에서 벌이는 헤프닝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하는 욕심은 ‘제자리 뛰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서우취, 제18회 서우취회 개최

지난 21일(월)부터 24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제18회 서우취회가 열렸다. 사육 랍스와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는 등 다 양한 작품이 선보였다. 천조작품으로 ‘한정 무한’ 없는 삶이 전시됐다.

‘돌림’ 정기 전시회 열려

지난 21일(월)부터 24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제18회 서우취회가 열렸다. 사육 랍스와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는 등 다 양한 작품이 선보였다. 천조작품으로 ‘한정 무한’ 없는 삶이 전시됐다.

“CD-ROM브로셔...
역시 현대는 다르군요”

홍익대 광고디자인학과 4년 이재진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현대가
채용정보서비스에도 앞서갑니다.

인재관중의 이념으로 새로운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현대 - 적극적인 사교방식과 창의력으로 미래를 주도할 인재들을 위해 첨단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을 위한 최첨단 서비스 정신으로 탄생한 국내최대 CD-ROM 브로셔 -

21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현대의 모습에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지향하는 경영의지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업정보를 보다 빠르고 흥미있게 대하생태계분에게 전달합니다.

끊임없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대가 채용정보서비스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현대의 채용서비스
- 지원서류 간소화 (인사 지원서 11종)
 - 기업내부 채용내역
 - 외국대기업별 채용내역
 - 입사지원서 작성
 - 사내 다자언어모집, 소크스 내이 경진대회 등 대학생 대상 이벤트
 - 국제화관련 특색 있는 정보 제공



4686

양캠프 12개단대 학생회장 선출 단독출마·80% 이상 지지율

윤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와 더불어 22일(목)까지 치러진 선거를 통해 서울·윤인캠퍼스 12단대 학생회장들이 선출됐다. 모두 단독후보로 등록하여 찬반과정을 통해 선출된 단대장들은 90년 한 해 중앙운영위원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대표하게 된다.

한편, 사대에는 입후보자인 배병성(경영정보 4)은 개인 사정으로 선거가 내년도로 연기됐다.

단대	당선자	찬성률	단대	당선자	찬성률
인문대	김영기(언어4)	93%	동양대	정·유종현(영어2)	86.1%
사상학대	강석현(러시아3)	87.3%	법과대	정·유종현(영어2)	84.9%
동양학대	남태원(아랍어4)	87.7%	법과대	황인복(법학3)	89.9%
동구어대	양홍식(세어2)	91.5%	상경대	김한수(무역3)	90.4%
자연대	김종석(물리화학2)	88.2%	정책과대	윤상호(신앙3)	90.4%
공대	문진석(컴퓨터2)	85%	사범대	이원복(영교2)	96.2%

(서울)

(서울)

여위, 여학생과 함께하는 정견토론회 개최 학내 여성문제 고민하는 자리 마련

30대 총학생회 후보와 여학생이 함께 하는 여학생문제를 고민하는 '여위와 함께하는 정견토론회'가 지난 24일(금) 여학생위원회 회의 주최로 여학생회실에서 열렸다.

30대 총학생회 정후보 기호 1번 김윤식(사상·영어 4), 기호 2번 박성동(상경·경영 4), 기호 3번 박호진(사범·특수 4)은 참석자들이 지적한 여학생의, 산관과 여학생부, 매달음기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여학생운동의 위상 △학내 여학생문제 해결의 대안 △90년 총학생회 건설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 학내 여학생문제 해결방안은

1번·여학생이란 이유만으로 보편적으로 취해지는 차별은 폐지되어야 하며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2번·언어폭력이나 성적폭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로 감싸고 있는 현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학생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3번·여성문제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90년 총학생회 건설에 대한 견해
1번: 여학생운동은 학생들이 스스로서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구성원들의 관심의 변화와 인식의 확산을 통해 총학생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각 학과, 단대 등 기초단위에서부터 여학생문제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총학생회는 이런 모든 재반조건이 마련될 때 진정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번: 여학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총학생회 건설이 필요하다. 각 단대까지 여학생문제를 고민하는 기구를 조성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된대로 △여학생취업문제 △도시권 성추행 폭치 사건 등이 후보들에게 던져졌다.



□ 모현기숙사 수위 성원영(49)씨를 만나

“학생들을 감싸주는 친구가 되고 싶네”

오후 5시30분에 끝났다. 또한 3일에 한 번되는 밤샘 근무까지

이렇듯 바쁜 근무시간 속에서

서 활동하던 성씨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그냥 두는 건 내내 화장

실에 구토를 매달고 있는 것을 볼 때

가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지성

이라는 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서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성씨는 학생들에게 대학인다운

행동을 부탁했다.

잡다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성씨는 “이번만

기 기숙사 내에 쓰레기 분리수

거를 실시하는 자들이 잘 지

켜주었으면 해”라며 학생들

이 최소한의 공동의식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 겨울에

인도와 여학생이 변기에 걸

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러니 놀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라며 여학생의 안전사고를

경각하는 성씨의 눈길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처음부터 용역으로 입사했

는데 그렇게 많은 보수는 기

대도 안줬지만 그래도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성씨의 보수는 월 60여만원의

월급에 인. 3배의 보수로,

용역직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

은 역수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인

생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

는 성씨는 “온실에서 안일하게

자란 사람들이 역경과 시련속에서

자란 사람이 성공한다”라며

학생들에게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

는 낙관적인 자세와 포부를 가지

라고 당부했다.

전명수 수습기자

수강신청, 29일(수)부터 실시 전공과정 모두 부전공으로 채택

90년도부터 본교 모든 학과(사범대 제외)의 전공과정이 부전공으로 채택된다.

캠퍼스별 부전공이 별도로 개설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철학·전산(3·4학년)·사상·교육학

△윤인캠퍼스: 정치학·행정학·신문방송학·법학·경영학·교육학

또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이 인정되는 부전공은 영·불·독·일·스페인·중

국어·일본어 등이다. 부전공으로 개설된 강좌에 추가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90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오는 29일(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미수강신청자 및 복학생은 90년도 2월 22일(목)에서 23일(금) 양일간에 걸쳐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2~4학년의 수강신청 허용 학점 범위이다.

대학	동양어 서양어 사상학	정·대 상경대 경영대	법과대	사범대	인문대	자연대 전공대
학년						
2	21	21	21	20	21	21
3	20	18	21	19	18	18
4	16	20	20	21	18	17

(96년 수강신청 허용 학점)

해갈, 제2연구동 벽화제작 세계속의 외대 이미지 살려

서울캠퍼스 만화모임 해갈은 현재 건설중인 제2연구동 연구동 건물 옥외에 오는 27일(월)부터 12월 2일(토)까지 6일간 벽화를 그려

준다.

이와 관련 해갈은 “세계 속의 외대”와 “외대 이미지를 살려”며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유발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고 벽화 그리기를 추진한 이유를 밝혔다.

당국이 지원의사를 밝혀 결정했다. 해갈원 20여명이 참여하며 경비 일체는 대학당국이 부담한다.

“민중의 삶의 공동성 실현”이라는 주제에 얽힌 이번 작업에는 작품의 기본이 되는 ‘벽’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해갈 회장 유인재(사상·영어 4)은 “외대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가 아쉬웠다”라며 “이번 작업으로 학생들이 대중음악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되새길 생활속의 공동성을 찾아 내다본다”고 바램을 밝혔다.



내년은 남남평등 외대로... 지난 24일(금) 여학생위원회 주최로 제30대 총학생회장 후보들의 정견토론회가 여학생 회계실에서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97년 총학생회 건설과 학내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토론됐다. 한승주 기자

용인

한알, 품을 감습혀 열려

총동맹 한알은 지난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와 동아리

방에서 품을 감습혀 열려 열었다.

“민중의 삶의 공동성 실현”이라는 주제에 얽힌 이번 작업에는 작품의 기본이 되는 ‘벽’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알 회장 유인재(사상·영어 4)은 “외대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가 아쉬웠다”라며 “이번 작업으로 학생들이 대중음악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되새길 생활속의 공동성을 찾아 내다본다”고 바램을 밝혔다.

들컴, 컴퓨터 전시 연구회 개최

컴퓨터 동아리 들컴은 지난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3일간 학생회관 301에서 제6회 컴퓨터 전시 연구회를 개최했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멀티미디어·인터넷 등 다양한 컴퓨터 통신을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멀티미디어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95, OS/2를 비롯, 한미안

자료를 인터넷통신 서비스로 전시했다.

들컴 회장 정병재(자연·제이계속 3)은 “아무리 컴퓨터가 보편화되어도 활용은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넓혀주고 싶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철학과, 동문인의 밤 열려

‘철학인의 밤’이라는 이름의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열렸다.

선주배강의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시 교수인

사·철학과의 반자취를 담은 슬라이드 상영·선주배 강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장을 준비한 김동욱(1)군은 “대규모 장소 섭외

서울

대학발전기금마련 주유상품권 판매

대학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주유상품권 판매가 서울·윤인캠퍼스 구내매장에서 지난 6일(월)부터 시작됐다.

선주배강의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시 교수인

사·철학과의 반자취를 담은 슬라이드 상영·선주배 강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학발전기금 5천을 기금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판매된 전체 판매금의 3%를 외대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동양대, 교양특강 개최

동양대교양특강교과를 마련한 주유상품권 판매가 서울·윤인캠퍼스 구내매장에서 지난 6일(월)부터 시작됐다.

선주배강의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시 교수인

사·철학과의 반자취를 담은 슬라이드 상영·선주배 강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학발전기금 5천을 기금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판매된 전체 판매금의 3%를 외대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발전기금 5천을 기금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판매된 전체 판매금의 3%를 외대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199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예정 공고

199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의 개설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공고하니 수강희망자는 신청하기 바람.

—아 래—

- 1.목 적: 가. 정규학기중 취득하지 못한 학점을 방학기간 중에 취득하게 하고 나. 학위급 성적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며 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수업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2.수업기간: 1995. 12. 18(월) ~ 1996. 1. 8(월) 16일간 (토요일 포함, 공휴일 제외)
- 3.수강 대상: 본교 인문대 3개 학과인 국어학, 한국사계열, 국민윤리, 논리와사상, 역사학개론, 매스컴과 사회, 심리학개론, 생명과학, 사회과학개론, 생명과학의 동향, 환경과학개론, 근대유럽사사상, 지질, 한국근·현대사, 동양지리개론, 문화인류학(15과목)
- * 수강 희망인원 30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해서 개설하게 될 것으로 수강 희망자는 빠짐없이 계절학기 수강희망과목 조사서를 제출하기 바람.
- 6.수강 신청 희망과목: 6학년 이내 (단, 계절학기 수강학생은 95. 2학기 재학생에 한하며, 7학기 총 학위학급인 134학점(법학과 144학점)이상인 학생은 그 해당과목에 개설되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 7.수강희망과목 조사일: 1995. 11. 29(수) ~ 12. 1(금) 3일간
- 8.조사서 배부 및 접수처: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
- 9.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1995. 12. 7(목) ~ 12. 11(월)
- 10.수강신청 및 등록처: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
- 11.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로 문의하기 바람.

1995. 11.

교 무 처 장

공 고

1996학년도 제1학기 정규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아 래—

- 1.수강신청 일시 및 장소
 - 1)일시: 1995. 11. 29(수) ~ 12. 1(금) 3일간
 - 2)장소: 소속학과 학과장실
 - 3)수강신청 OMR카드를 수강신청 당일 소속 학과장실에서 배부함.
- 2.수강신청 절차
 - 36 제1학기 강의시간표가 11월 27일(월) 각 학과로 초기에 배부된 예정이니, 재학생은 ‘수강신청에 관한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 OMR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장실에 제출한다.
 - 3.교양과목의 개설 또는 폐강 여부 1.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개강전 초기 결정할 예정이니 수강신청을 하지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4.미수강신청자에 대한 규제 조치
 - 등록을 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업성적표상 그 해당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0.00으로 표기되고 학과개교 대상이 된다.
 -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수강신청에 관한 지침’을 참고 함.

1995. 11.

교 무 처 장

공 고

1995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함.

—아 래—

- 1.시험기간: 가.1995. 12. 11(월) ~ 12. 15(금) 5일간 나.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 2.평가방법: 담당교수 제정으로 평가(필답교과, 과제물부과, 기타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 3.추가시험: 가.대성자 - 해당과목의 중간,기말 시험을 모두 결시한 자로서 1회 이상 유고 결석한 경우에 한함 나.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1995. 12. 18(월) ~ 12. 19(화), 해당대학 교학과
 - 다.추가시험실시 - 1995. 12. 22(금)
 - 라.추가시험 성적처리 - A* 이하(학칙 제36조)

1995. 11.

교 무 처 장

공 고

1996학년도 제1학기 고시강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 1.신청기간: 1995. 11. 27(월) ~ 1995. 12. 15(금)
- 2.신청장소: 학생처 장학계
- 3.신청자격: 1995. 6. 1 ~ 1995. 12. 1 기간중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사법, 행정, 외무, 회계사, 군법무관, 기술, 임법)에 1차이상 합격한 재학생.
- 4.구비서류: 가. 합격확인서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1995. 11. 27.

학 생 처 장

공 고

1996학년도 제1학기 교내 성적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 1.신청기간: 1995. 11. 27(월) ~ 1995. 12. 15(금)
- 2.신청장소: 각 학과장실
- 3.신청서류
 - 가. 장학금수혜신청서 1부(자 학과사무실 비치)
 - 나. 기타서류

1995. 11. 27.

학 생 처 장

□ 영화평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지식인의 관찰로 그려낸 전태일의 진실

통금 사이엔 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뛰어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대구에서 태어난 평화시장의 노동자. 그는 어린 여공에게 차비를 빌려 풀방을 사주고 자신은 새벽 1시 넘어서 잠에까지 뛰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기본 바탕은 영화 속에서 '영수'라는 수배중인 운동권 지식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전 한계선문사 논설위원 조영래 변호사가 취재를 통해 쓴 '아는 청년 노동자'라는 책이다. 출간부터 적자도 밝히지 못한 채 탄압을 받은 이 책은, '전태일 정신'으로 개칭된 후 이번에 다시 영화로 만들어져서 된 것이다. 어느정도 알려졌듯이 이 영화는 김영수라는 관찰자가 전태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드러나는 사실들이 기술되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태일의 70년대는 흑백화면으로 관찰자의 80년대는 컬러로 촬영. 시간적 구성은 상황에 따라 재설정되어 신성한 길을 준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는 동료 여공이 패병으로 죽어 가는 모습을 보고 열악한 작업의 피해를 피부로 느낀 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실 천하던 친구였다. 그는 잘못된 '근로기준법'을 연구하기 위해 '바보 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사장에 의해 해고 당하고 만다. 그러나 그는 그 시기 자신이 진정한 해아할 일과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은 불쌍한 형제들의 곁, 마음의 고



박경수 감독은 전태일을 70년대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 70년대 상황에 집착한 인물 위주가 아닌 70년대와 80년대를 연결시켜서 바라보며 1995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탄생시켰다.

한인 평화시장임을 깨닫고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온다. 그는 불쌍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로 맹세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활동은 시작된다. 기자들에게 시선·직접·임금·건강상태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호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활동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나 국경간사를 두려워한 의 안동과 경영자들의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사정 계획은 발각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당하게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전태일은 몸이 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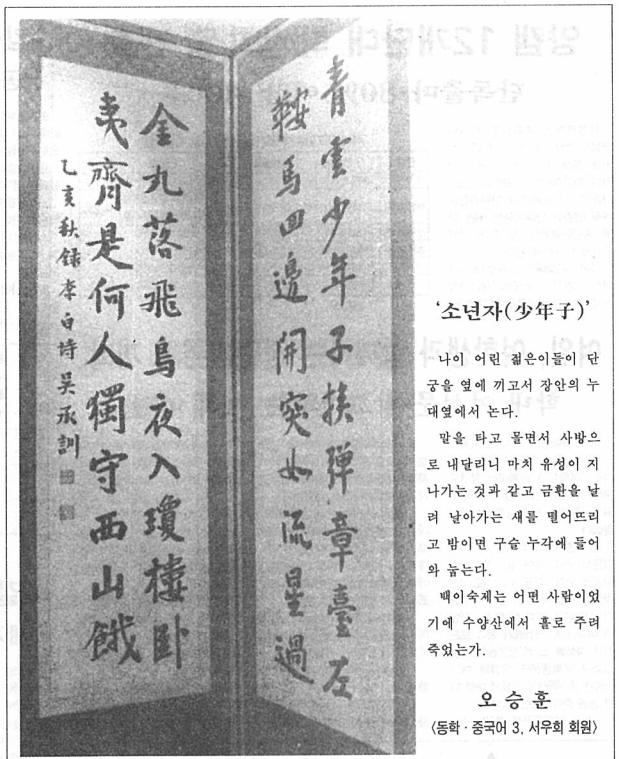
고 단순한 상황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메시지를 형성한다. 그것은 영화 전반적으로 낮게 깔리는 미싱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어린 노동자들의 말 한마디 속에서 나타난다. '당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이다.

감독은 두가지 편를 통해 70·80년대를 구분짓는 것이 아닌 지금의 시대에까지 그 메시지를 연장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책과 같이 철저한 한 인물 위주의 이야기라면 이해하기도 쉽고 흥미를 유발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 이는 과거의 한 순간으로 끝날 수가 있다. 컬러로 표현되는 80년대는 그 지식인만의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 80년대의 모습을 보고 오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차자는 과거와 현재의 명목적인 대비가 아닌, 마지막까지도 쫓기는 문성근의 모습을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모습을 고발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여러 맥스럼에서 아름다운 영상이 등을 찬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참루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영화가 끝난과 동시에 터진 박수 소리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과연 어떠한 작품인지 솔직하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

윤영남
(사학·경영정보 2)



'소년자(少年子)'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 단궁을 옆에 끼고서 장안의 누대원에서 논다.

말을 타고 물면서 사방으로 내달리니 마치 유성이 지나가는 것과 같고 금환을 날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밤이면 구슬 누각에 들어와 놀는다.

택이속에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수양산에서 홀로 주려 죽었는가.

오승훈

(동학·중국어 3, 서우회 회원)

□ 마르케스의 작품세계와 현실참여

중남미 현실, 열성적 현실 참여 문학 창조



'매직 리얼리즘' 혹은 '현타스틱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문예세계를 제시하면서 세계 문학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라틴 아메리카의 Boom 세대 소설가 중 단연 독보적인 존재인 마르케스는 '백년만의 고독'으로 1982

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20세기 서구 문단에서 소설의 죽음을 논하던 시기에 나온 그의 작품들은 문화적 측면과 현실 참여라는 면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의 작품세계를 조망해 보면 '백년만의 고독'에서 볼 수 있듯이 마술적 사실주의로 대표된다. '신화와 역사의 결합' '일상의 주술화'로 표현되는 마술적 사실주의는 환리주의나 인위적인 법칙을 배제하고 자유분방한 구상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서술한다. 또한 이러한 마술적 사실주의는 최근작인 '사랑과 다른 이야기'에서 '신화와 역사의 결합'으로 부터 '역사의 주술화'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마르케스는 자기 어머니의 입을 빌려 '사랑과 다른 이야기'를 '내가 쓴 소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언제나 제

마지막에 나온 책이다. 나의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도 마르케가 태어난 때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이와같이 그의 작품들은 그가 인정했듯이 엄청난 상상력과 미신을 믿는 외조부모와의 생활 속에서의 많은 영향과 함께 민중의 착취, 탄압 세력의 불의와 같은 부조리와 불의를 지닌 중남미적 현실에 기초한 바 크다.

마르케스의 작품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작품에서 배경으로 나타나는 마르케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과거 우리라가 군부 독재력에 의해 통치받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마르케스는 자신이 현실 참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그가 만일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토록 열성적으로

현실에 참여했던 것도 그 자신의 생애가 가난과 불의의 희생의 역사였으며 따라서 이런 중남미적 현실이 그에게 가르쳐 준 철학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프랑스 르몽도지와 의 인터뷰에서 '사건은 나의 책 위에 숨은 주인공이요, 나의 유일한 결론이며 유일한 이데올로기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순전한 환상이 라틴 아메리카 현대 소설의 두드러진 요소가 되어 그것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가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의 신중함 대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을 창조해 내려고 애쓰고 있다." - 데이비드 갈라

김진우
(서양·네덜란드어 2
해외문학회 회장)



세계 속의 악법

은 국민의 정의에 대한 열망이 5·18특별법제정을 이뤄냈다. 역사의 방향타를 민중이 쥐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양심수를 만든 국가보안법 철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목)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된 세계 양심수와 함께 한 국보법 철폐 집회 중에서 한 외국인이 양심수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한승주 기자

5·18 끝없는의침



우리가 너희의 죄를 있게 하리라

5·18특별법 제정을 위해 군화발에 맞서며 이어온

민중들의 피땀어린 투쟁은

15년이 지난 지금 광주를 승리로 이끌었다.

지난 24일(금) 특별법 제정을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주체 및 특별검사제 도입 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특별법 제정이 단순히

권력자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주민중항쟁의 총체적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민중자주론
외대화보